

LG전자, 국내 최대규모 ESS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SPC와 함께 전남 신안군에 구축
ESS 92MW·배터리 340MWh
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시스템 적용

LG전자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성공하며 시장 리더십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최근 전남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 ESS를 완공했다고 7일 밝혔다. KCH그룹과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과 함께다.

이 ESS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력변환장치(PCS) 용량은 92메가와트(MW), 배터리 용량은 340메가와트시(MWh)에 달하는 대규모다. 이는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0킬로와트시(kWh)임을 감안해 가구당 매일 11.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만90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다.

LG전자는 전력변환장치(PCS)와 전력관리시스템(PMS)을 개발하며 ESS 제품 설계와 시공까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을 탑재하며, 모든 구성요



LG전자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

/LG전자

소를 3년간 무상 보증해준다.

안전성도 높다. PCS와 배터리, 수배전반을 분리해 실내온도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24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도 가능하다. 수배전반은 발전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주는 장치다.

또 24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도 적용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감지하고 물을 직접 주입해 조기 차단할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한국전력공사 신계룡 변전소 주파수 조정용 ESS, 한국철강 창원공장 피크 저감용 ESS, 환영철강 당진공장 피크 저감용 ESS, 경주풍력 신재생 연계 ESS 등 국내 주요 사업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다.

LG전자 ESS사업담당 안혁성 상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 편의성, 안전성을 모두 갖춘 ESS 토털 솔루션과 믿을 수 있는 사후관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내일 '갤럭시 A12' 출시

20만원대·쿼드카메라 탑재

5000mAh 대용량 배터리
사전구매고객 10% 할인 혜택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앞서나간다.

삼성전자는 9일 갤럭시 A12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하루 동안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온라인 마켓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갤럭시 A12는 올해 처음 출시되는 보급형 제품이다. 가격이 27만 5000원으로,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높은 성능을 확보했다. 6.5인치 인피니티-V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15W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고성능 카메라도 탑재했다.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와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로 다양한 사진을



삼성전자 갤럭시 A12

/삼성전자

촬영할 수 있다.

편의성도 높다. 측면 지문인식 센서와 함께, 매트한 후면 마감 디자인으로 지문과 얼룩을 최소화해준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고객에 10%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 전원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이용권도 준다.

/김재용 기자

현대중,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마무리

지분 34.97%, 8500억 인수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KDB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97%를 8500억원에 인수한다.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현대건설기계와 시너지를 통해 그룹 건설기계사업부문은 국

내 1위,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법인의 독립경영체제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 부문 등을 강화해 결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영국 중장비 전문기업인 KHL의 엘로테이블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각각 3.3%(9위), 1.2%(22위)다. 두 기업이 합쳐질 경우 미국 캐터필러(16.2%), 일본 고마쓰(11.5%), 미국 존 디어(5.5%), 중국 XCMG(5.5%), 중국 사니(5.4%), 볼보(4.6%)에 이어 7위 업체가 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각 법인의 독립경영체제를 지원하고, R&D 부문 강화 및 중복투자 조율 등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협력사 200곳에 납품대금 160억 조기지급

300억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맞아 200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16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131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협력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3~5월 사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된 거래대금은 약 700억원에 이른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비스포크 페스티벌' 개최

최대 200만원 상당 캐시백 혜택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누적 출하량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스포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스포크 누적 100만대 출하를 기념해 준비됐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TV와 세탁기 등 맞춤형 가전 11개 품목 중 6개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스포크-Q' 이벤트가 마련됐다.

대상 고객은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이사 등 새 출발을 앞둔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훈수클럽 가입 고객은 최대 50만 포인트 ▲웨딩 마일리지



삼성전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비스포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삼성전자

가입 고객은 삼성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 캐시백 ▲입주클럽 가입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을 준다.

행사 대상 제품 구매 고객이 시리얼 넘버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의류정리기 등 신제품과 웨스턴 조선포인트 2박3일 숙박권, 기프트콘 등 혜택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활용 특허 업무 고도화

특허청과 기술 이전 업무협약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특허청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업무 고도화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8일 특허청과 인공지능 기술을 '유사 특허 검색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 이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월 업무 협약을 맺고 다국어 번역 처리 기술 '카카오 i 번역 엔진'을 특허청의 해외 특허 문헌 분석 및 번역 업무에 활용해왔다. 이번 후속 협약을 기반으로 특허 검색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향후 번역, 유사검색 기술에 더해 다른 인공지능 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현대건설기계, 머신컨트롤 적용 굴착기 출시

평탄화·관로 작업 등 반자동 수행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첨단 제어기술인 머신컨트롤을 적용한 굴착기를 출시, '자율굴착기'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현대건설기계의 최근 반자동작업이 가능한 머신컨트롤 굴착기를 첫 구매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머신컨트롤을 굴착기에 적용해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머신컨트롤은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건설 분야의 핵심기술이다. 현대건설기계의 이번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스마트 건설장비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머신컨트롤 굴착기는 디지털 센서와 전자유압시스템 등을 통해 굴착기의 자세와 작업지점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에게 알려주고 평탄화 작업이나 관로 작업, 터파기 작업 등을 반자동으로 수행한다. 또 별도의 측량 인력 없이도 원하는 작업의 깊이나 기울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땅의 높낮이를 파악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작업현장의 공기(工期)단축과 비용절감 등 작업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향후 자율 굴착기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뤄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